

# 식민지·분단·냉전의 100년을 보내고, 평화와 번영 그리고 포용의 새 시대를 내다보며

한 완 상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 1.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 100년

19세기는 서방제국주의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들불처럼 번져갔던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19세기 중턱, 서방의 과학기술을 단시일에 학습한 일본은 19세기 끝자락에 이르러 마침내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1895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양평화라는 이데올로기적 명분을 앞세워 대만을 식민지로 삼켰다. 뿐만 아니라, 그 기세로 일본은 한반도를 강점하려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견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청일전쟁 승리 꼭 10년 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에 돌입했다. 이 때 예상을 깨고 일본이 승리했다. 그것은 같은 해양세력인 미국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 때 서러운 역사적 사실이 나타난다. 러일전쟁은 1904년 2월에 터졌는데 같은 해 8월에 일본은 이미 이른바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인 관리를 파견하여 대한제국의 외교, 군사 및 재정권을 장악했다.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재빨리 영합했던 친일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 러일전쟁 끝나기 전 2개월, 즉 1905년 7월에 이른바 가쓰라-테프트 밀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향후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 지배를 일본이 인정해주는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인정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니까 두 해양세력의 결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된 셈이다. 이 때 미국 대통령은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는데 그는 일본을 도우려는 의도로 러일전쟁을 마무리 하는 일에 나섰다. 이 공로로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다. 그의 노벨평화상은 우리 민족에게는 일제 36년의 긴 트라우마의 아픔과 무관하지 않기에 우리의 심경은 슬프게 착잡하다. 마침내 1910년 일본은 한반도를 병탄했다. 무자비한 일본군부의 식민통치가 시작 되었고 우리민족의 트라우마는 본격적으로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비극 속에서도 우리민족은 절망하지 않고 독립과 광복의 등불을 높이 쳐들었다. 전체 인구의 10%가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3·1독립혁명운동<sup>1)</sup>에 용기 있게 뛰어 들었다. 이 혁명운동의 정신은 비폭력 평화정신이었다. 3·1 정신은 바로 2년 전 러시아에서 터져 나온 볼셰비키 계급 혁명 이념과는 달랐다. 3·1 정신은 밑으로부터 터져 나온 비폭력 민중혁명이었으나, 그것이 유혈적 계급투쟁은 아니었다. 비폭력 적극 저항운동이었기에 그 공공성과 감동성, 그리고 그 변혁성에 우리는 새삼 주목해야 한다.

1)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3·1운동을 “세계혁명사에서 신기원을 열어놓은”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운동이야말로 러시아 혁명,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계승한 “세계 개조를 지향하는 혁명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이 정신의 영향을 받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임시정부는 국가지표를 민주공화제로 삼았다. 이 사실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아마도 이 같은 우리 민족의 비폭력 평화정신, 민주정신에 감동했기에 당시 세계적 시성(詩聖)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밝은 빛”이라고 칭송했던 것 같다. 이즈음, 자기 조국 인도에서 영국 식민통치에 맞서 비폭력 적극 투쟁했던 간디도 이 동방의 밝은 빛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일본제국주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폭력 저항을 받게 되자 잠시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대체하는 것처럼 속였으나 1930년대 들어와 중국침략을 가속화 하면서 우리민족을 더욱 총체적으로 다시 옥죄었다. 언어와 가족의 성마저 박탈했고, 종교 신앙도 탄압했다. 정치적 억압에 더하여 경제적 수탈도 강화했다. 1941년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기간 우리민족을 더욱 가혹하게 옥죄었다. 민족 트라우마는 극에 달했다. 젊은 장정들은 강제 징용의 대상이 되었고, 일본 유학생들은 강제 징집되어 일본군의 총알받이로 전락되었다. 어린 소녀들은 군위안부로 징발되어 성노예로 갖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데 태평양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났다. 그렇다면 우리민족은 과연 광복과 해방의 환희를 누릴 수 있었던가? 그 간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부당한 고통, 그 트라우마는 조금도 치유되지 않았다. 그 까닭은 자명하다. 일제 식민지의 아픔이 민족의 해방과 광복의 기쁨을 건너 뛰어 바로 민족 분단이라는 새로운 고통, 더 억울한 집단적 트라우마를 우리민족에게 안겨다 주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같은 모순과 비극은 당시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대륙 패권 국가인 소련을 철저히 견제 봉쇄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 속에서 빚어졌다하겠다.

원래 태평양전쟁에 참여하기를 꺼려했던 소련은 미국이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폭 공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종전이 매우 임박했음을 확신했다. 소련 당국은 바로 선전포고를 했다. 그리고 스탈린은 소만 국경을 넘어 남하하도록 자국 군대에 명령 내렸다. 소련군의 남진 속도는 매우 빨랐다. 그 남하 속도에 놀란 미국 당국은 긴급하게 소련군 남하를 저지할 선을 찾게 된다. 이 때 미국 정부는 우리민족의 의견을 전혀 참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참으로 허무하리만큼 짧은 시간에 38°선으로 조국은 분단되고 말았다. 이 비극적 국토분단은 그 후 남북에서 각기 추진된 단독정부수립으로 마침내 1948년 여름과 초가을에 국가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마침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세웠고,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일성은 25일 이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단독 정부를 세웠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토 분단이 국가 분단으로 이어지면 민족상잔이 필연적으로 올 것을 노심초사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 중, 백범과 우사는 결사적으로 이 단독정부

---

2) 간디의 뒤를 이어 인도 민족운동을 이끈 네루는 “조선의 청년들은 맨 주먹으로 적에 항거하여 용감히 투쟁하였다. 3·1운동은 조선민족이 단결하여 자유와 독립을 찾으려고, 수 없이 죽어가고 일본 경찰에 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던 숭고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하였다.” 또 유관순 열사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용감한 소녀’라고 평가했다. 『세계사 편력(1934)』 이 외에도 3·1운동은 베트남·필리핀·이집트 등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있던 약소민족의 반제 민족운동을 고양시키는 자극제 노릇을 하였다.

수립을 혼신을 다해 막아보려 했다. 김구와 김규식 두 임시정부지도자는 이 같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막고자 이른바 남북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평양에 간 두 분은 북의 실권자였던 김일성을 설득하지 못했다. 비감한 심정으로 서울로 내려오면서 38° 경계에서 두 분 임정지도자는 분단선을 बे개 삼아 죽더라도 민족분단을 막자고 다짐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숭고한 열망은 분단체력에 의해 처참하게 좌절되고 말았다. 그 분들의 예측대로 단독 정부가 수립된 후 2년이 되지 않아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터지게 되었다. 민족의 트라우마는 6·25 전란 속에서 참으로 처절하게 심화되었다.

이런 처참한 민족상잔 중에 미국은 소련을 보다 효과적으로 국제적 규범 속에서 봉쇄·견제하기 위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성급하게 추진하였다. 앞으로 최강대륙세력인 소련을 보다 힘있게 견제·봉쇄하기 위해 전범국 일본의 반인륜적 전쟁범죄 징벌을 축소하였다. 장차 소련 견제·봉쇄에 같은 해양국가인 일본을 활용하기 위해 세계경제 강국으로 키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강화조약 체결을 서둘렀다. 그 결과 제1급 전범자 중 주요 인사를 사면했다. 그들을 장차 일본정치의 핵심 지도자로 키우려 했다.

염려스러운 것은 오늘에 와서는 해양 패권국과 대륙 패권국 간의 힘겨루기가 미소 간의 대결에서 미중간의 대결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대체로 냉전 세력은 해양 패권국 간의 결탁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들은 우리 민족의 트라우마 치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러기에 민족 트라우마를 치유하려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한반도에서 대거 나와야 한다. 이들은 3·1운동 정신과 임정의 민주공화제를 21세기 한반도 상황에서 보다 새롭게 다듬고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 실현과 남북 각 체제 안에서 민주적 질서와 포용적 사회구조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지난 70여 년 간 남북관계를 악화 시키면서 반민주적인 정치 기득권을 강화해온 세력들 간의 요상한 그리고 음험한 ‘상조’ 관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성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의 문제다. 이 고약한 메커니즘을 극복하지 않고서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적 포용체제의 확립은 이뤄지기 힘들다. 한국 사회와 국가를 보다 민주적 포용체제로 발전시키려면, 적대적 공생관계(antagonistic symbiosis 또는 symbiotic antagonism)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 2. 적대적 공생관계 청산과 포용적 한국의 길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갈등이 지난 70여 년 간 줄기차게 지속되어 온 것은 이 분단과 갈등으로부터 온갖 이득을 엄청나게 얻는 세력이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기득권을 유지·강화시켜주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 적대적 공생관계다. 이 관계의 작동에 주목하고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명쾌하게 알아야 한다.

첫째, 분단된 두 체제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면, 각 체제의 지배집단은 자연스럽게 배타적 비민주권력의 주체로 변질된다. 대체로 지배 권력은 상대방을 악마로 낙인

찍어 그 악에 대해 극단적 배제 정책을 쓰게 된다. 그래서 악마화(demonization)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법률체계 속에 깊이 스며든다. 국가와 체제의 규범 중, 가장 심각한 법률, 이를테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에 의해 상대방은 악마화 되고 배제된다. 그렇게 되면, 그 체제는 포용적 민주체제가 될 수 없다. 매우 위험한 배타적 전체주의 체제로 변질되기 쉽다.

둘째로, 적대적 공생에서의 공생적 특징은 권력주체의 명시적 언술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권력 주체의 공식적 발표에서는 상대방을 악마화 하기 때문에 두 권력 주체들 간에 그 어떤 공생적 관계, 상호(相助)의 관계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다. 권력주체의 공식적 의도 차원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초전박살 의지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음험하게 각기의 기득권을 보호·강화해주는 측면(또는 기능)을 꿰뚫어 보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그들의 공생관계는 그들의 표면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적대적이면서도 공생적이라는 모순적 관계는 서로 악마화 하는 권력주체의 행동의 결과를 꿰뚫어 살펴야 비로소 이해된다. 특히 그 요상함을 이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로워질 때 두 권력 주체는 상대방이 곧 쳐들어 올 것으로 짐짓 과장한다. 북쪽에서는 미 제국주의 앞잡이들이 남쪽에서 곧 북침할 것이므로 이들을 초전에 박살내야한다고 공언한다. 남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핵으로 남쪽을 공격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초전 박살내야한다고 엄포를 놓는다. 이렇게 서로 격돌할수록 양쪽 권력은 요상하게도 각기 자기 체제를 권력주체 중심으로 단속·단결시킨다. 이른바 색깔 공세적 통제가 바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되면, 대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짐짓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은 유혹과 위험에 빠지게 된다.

셋째로 이 같은 요상한 역설은 남북관계를 짐짓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각 체제 안에서 민주적 질서를 세우는 일을 어렵게 한다. 사회 정치 관계를 배타적 관계로 악화시켜 민주적 가치들을 항상 훼손한다. 인권운동, 노동운동, 양극화 해소 운동, 환경운동, 심지어 인도주의 운동마저 불온한 '반체제적 운동'으로 낙인찍히기 쉽다. 이런 풍토 속에서는 자유주의자가 사회주의자로 둔갑되기 쉽고, 사회주의자는 극단적 좌파원리주의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 지난 70년의 우리 정치 현실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얼마나 자주 목도하지 않았던가.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의 트라우마도 더욱 깊어지기 마련이다.

이 같은 요상한 적대적 공생관계가 작동하게 되면, 권력 주체의 색깔 갑질은 더욱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사회 정치경제 관계는 더욱 배타적이 되고 만다. 자유롭고 성숙한 열린사회 곧 포용사회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그러기에 보다 포용적인 사회질서와 함께 보다 평화로운 민족공동체(남북관계 개선에 따른)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의 작동을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그 작동을 멈추게 하는 일에 시민의 힘을 모아야한다. 이미 촛불시민혁명에서 이 요상한 관계는 철퇴를 맞은 셈이다. 그러기에 이 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현 정부는 지난날의 적폐를 조용히 그러나 착실히

정리해 나가고 있다. 미래에는 포용과 평화가 단비처럼 내리는 새 질서가 들어서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노력이 있었기에 지난 1년간 오늘의 정부는 세계를 놀라게 하는 비핵평화프로세스를 발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의 그 비폭력적 위력과 자발적 에너지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설국열차를 평창 평화열차가 되게 하고 그 평화열차를 다시 통일열차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평화프로세스로 작동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를 대변에 세계 최선진민국국가로 부상시킨 촛불혁명의 특징과 위력을 새삼 다시 한 번 정리 요약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 한국을 더욱 평화 만드미(peace-maker)의 국가로, 더욱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로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는 촛불의 특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역사 창조 에너지를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 3. 촛불시민혁명과 새로운 포용 한국 사회

1년 전, 한국에서 터져 나온 우리의 촛불시민혁명은 세계사에 길이 남을만한 자랑스러운 역사적 위업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 공공성, 그래서 나오는 그 감동성, 그렇기에 또 나타나는 그 구조변혁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그 짧은 기간 안으로는 새로운 정치 문화와 구조가 긴 정치 동면에서 깨어나는 듯하다. 밖으로는 남북 간 파격적인 탈냉전 변화가 상전벽해 같은 변혁을 불러오고 있는 듯하다. 세계는 지금 이 같은 우리민족의 천지개벽 같은 변화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촛불의 잠재력을 새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첫째로, 우리의 촛불혁명은 지금도 조용히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촛불의 위력은 밑으로부터 터져 나왔다. 선진 국가들이 가르쳐 준 것도, 요청한 것도 아니다. 우리의 긴 역사적 트라우마를 스스로의 힘으로 치유해내려는 자주적·자발적 민중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철저한 비폭력적 평화 만드미들의 헌신적 저력에서 나왔다. 그렇기에 지난 한 세기를 지배했던 친일·냉전 권위주의 문화와 구조가 한 순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촛불의 위력은 1919년 3월에 이미 터져 나온 이 땅의 민중과 민족의 힘이었다. 일본의 무단 통치라는 국가 폭력이 어찌하지 못했던 민족·민중의 힘이었고, 이 힘은 당시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sup>3)</sup>에도 불을 질렀다. 이 때 3·1운동의 힘은 ‘동방의 밝은 빛’이 되어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패권적 강대국이라는 어둠의 세력에 맞서게 한 빛의 힘이었다.

둘째로, 우리의 촛불 혁명은 질서정연하면서도 창조적 따뜻함으로 가득 찬 축제의 힘이었다. 집단적 지성과 환희가 함께 어깨동무하며 일궈낸 소통과 치유의 한마당이

3) 3·1운동은 당시 전 세계 피식민지 약소민족에게 끼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민국일보(民國日報)를 비롯한 중국 신문은 3·1운동의 상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고, 중국 신문화운동을 이끌던 베이징대학 교수 천두슈(陳獨秀)는 “3·1운동이 세계사의 신기원을 열었다.”고 평가하며 중국인들도 한국인을 본받아서 꺾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3·1 운동에 자극 받아 5월 4일 베이징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5·4운동 선언문에는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한 한인을 표상으로 삼아 투쟁할 것”을 천명하였다.

었다. 축제적 행진 속에는 놀랍게도 사회통합의 포용 에너지가 넘쳐흘렀다.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민족이 앞으로 지향해 나갈 미래상이 이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축제의 몸짓과 행진 속에는 계급의 벽, 세대 간의 벽, 지역 간의 벽, 젠더의 벽이 없었다. 차이는 차별의 구실이 될 수 없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즐겁게 걷는 손주들, 아빠 어깨 무등을 타고 엄마와 함께 재잘거리며 걷는 어린이들, 젊은 남녀가 손잡고 정답게 걸어가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나는 내일의 따뜻한 포용 사회를 보는 듯 했다. 그곳에서는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이득 보는 권력 갑질을 도무지 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적대적 공생관계 대신 우호적 상생관계가 새 역사의 문을 두드리는 듯 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케 하는 힘이 되기도 했다.

셋째로, 세계 언론이 우리의 촛불 위력을 아낌없이 격려해 주었다. 우리는 이제 지난날의 ‘들쥐’가 아니었다. 오히려 선진 구미세력이 수입해가고 싶은 매력 있는 성숙된 한국 촛불 민주주의 실천자가 되었다. 이 힘은 선진 서방국에서 직수입한 것도 아니고, 학습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래 전부터 축적되었던 민중 저력이 치유의 에너지로 터져 나온 힘이었다. 어느 외국 언론이 지적했듯, 촛불 시위는 마치 한국인이 김치를 일상적으로 먹듯 자연스럽게 촛불의 위력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나라의 힘이 었다. 생활화된 민주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다. 마치 오늘 한류의 젊은이들인 ‘방탄소년단(BTS)’ 들의 몸놀림은 어느 일본 평론가가 그들의 민족적 DNA 속에서 저절로 우리나라의 힘이라고 지적했듯이, 촛불의 몸놀림도 그러한 것 같다. 한 세기 전 인구의 10%가 태극기를 들고 일제 식민지 통치를 평화적으로 대항했듯 말이다. 그 엄청난 규모의 축제 시위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거리를 보면, 전날 밤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끔히 청소된 모습을 보고, 한국적 촛불 시민 저력의 성숙성에 대해 세계 언론은 탄성을 발했다.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성숙함이었다. 그 장구한 친일 냉전 통제가 제거 하지 못한 그 성숙한 민주적 저력에 우리 모두 스스로 놀라기도 했다. 만일 타고르가 지금 살아 있어 이러한 촛불의 힘을 보았다면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 매우 궁금하다.

#### 4. 맺는 말 :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내일을 바라보며

마침내 우리의 촛불은 이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활짝 열려고 한다. 지난겨울 올림픽이 평화의 국제제전으로 나아가면서 강대국들의 갑질로 드리워진 분단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는 한 세기 전부터 세계적 해양 패권국들과 대륙 패권국들 간의 힘겨루기가 격심했던 싸움 마당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고래 싸움에 역울하게 등이 터지는 새우 같은 고통을 당했다. 하기가 지금도 대륙 강국인 중국과 해양 강국인 미국과 맞서고 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군사 시설로 두 패권국이 다투고 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해양 최강국 대통령과 북한 최고지도자 간에 험악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핵전쟁으로

번지게 되지 않을까 세계가 불안 해 했다.

바로 이러한 위기 한복판에서 촛불의 힘으로 태어난 현 한국정부의 주도적 평화 공세로 일촉즉발의 위기는 순식간에 기적 같이 사라지고 있는 듯하다. 그 짧은 기간 안에 세계는 천지개벽 같은 변화 앞에서 모두 놀라고 있다.

아직 이르긴 하나 북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이 성취해 놓은 평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삼아 더욱 알차게 펼쳐진다면, 인류는 앞으로 그 무서운 버섯구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반도 주변에는 아직도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 간의 힘겨루기가 그치지 않고 있다. 군사 마찰 대신 무역 마찰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다. 미중 간의 모순을 주요 모순이라고 한다면 이 주요 모순이 해결되기 전에는 중일 간의 부모순이 극복 될 것 같지 않다. 또 하나의 부모순인 남북관계도 과연 궁극적으로 해소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는 이번 경험에서 주요한 모순 극복의 소중한 실마리 하나를 확인할 수 있겠다. 비록 남북이 주변 강대국들에 견주어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남북은 한 민족이기에 공동체적 유대로 뭉쳐 공동평화와 공동번영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주변 강대국들 간의 모순과 마찰도 해결 해내는 평화 강소국의 저력과 평화 협상국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일 북미정상회담이 남북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성공하여 21세기 온 세계에게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과 상호협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차제에 우리민족은 비록 <한민족 두 국가 연합>의 형태 속에서도 촛불 위력을 계속 발휘하여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는 역할을 계속 감당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테면 남과 북이 합의하여 국가연합의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영세중립국의 조정 역할을 발휘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타고르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기도 하다. 그는 3·1운동의 비폭력 민족운동을 보면서 코리아를 자기 마음의 조국이라고 고백하면서 코리아 민족이 계속 깨어나서 평화 강국으로 벌떡 일어나기를 소망했다. 코리아가 좁다란 울타리로 세상이 조각조각 갈라진 곳에, 평화의 통합과 포용의 새 국가를 이뤄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 했다. 그의 시 ‘동방의 등불’을 2018년의 시점에서 다시 음미 해 보자.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이던 코리아, 그 등불 한 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울타리로 세상이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곳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서 길을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자유의 천국으로 인도 되는 곳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sup>4)</sup>

오늘 한반도 중심으로 벌어지는 놀라운 평화 모멘텀을 타고르가 본다면 그는 그의 시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더 보탤 듯하다.

‘나의 코리아여  
비폭력 평화의 촛불 힘으로  
마침내 어느 폭력도 끌 수 없는 21세기 세계의 밝은 등불로 빛나고 있구나.  
내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드디어 평화 코리아로 깨어났구나.  
놀라운 평화 만드미 되어,  
포용 질서 세워 세계를 경탄케 해주기를.’

---

4)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동양인이자 인도의 시성으로 불리는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조선을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동방의 등불’은 원래는 4행의 짧은 시였다고 한다. 타고르가 우리나라에 보낸 4행의 ‘동방의 등불’에 그의 시집 ‘기탄잘리’에 35번째로 실린 11행의 시가 덧붙여진 것이라고 한다.